나 사용설명서

내 사주로 풀어 쓴 평생 성격 설명서

나는 왜 이럴까? 어떻게 써야 할까?

타고난 성격 분석 | 연애 · 일 · 돈 | 궁합

생년월일시 사주팔자 · 만세력 기반 풀이



MY CHARACTER · 己(기)土

조용한 감독관

FOR

이서연 님

1992. 8. 21. 양력 · 오전 7:40 · 여

사주한권

내 사주, 한 권으로

◆ 01 · AT A GLANCE

한 장으로 보는 나

이름	**이서연**
타고난 유형	己巳(기사) 일주 · 상관격 · 중화형
태어난 때	1992년 8월 21일 오전 7시 40분 (壬申년 戊申(무신)월)
캐릭터	조용한 감독관 — 己(기)土, 논과 밭의 흙
타고난 기운	흙 土 4 쇠 金 2 불 火 1 물 水 1 나무 木 0
잘하는 것	기준 지키기 · 오래 버티기 · 정확한 말 · 빈틈 읽기
잘 맞는 환경	이유를 설명해 주는 조직,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,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책상
안 맞는 환경	"그냥 하라는 대로 해"가 많은 곳, 매일 바뀌는 지시, 혼자 있을 틈이 없는 일정
힘이 나는 법	혼자 정리하는 시간 (사람 많은 곳에서는 금방 지침)
한마디로	오래 볼수록 진가가 보이는 사람

한 줄 요약 — 겉은 조용하고 무난해 보여도, 속은 쉬지 않고 살피고 따지는 사람. 이걸 모르고 겉모습대로만 지내면 가진 힘의 절반만 씁니다.

◆ 07 · SOUNDS LIKE ME

혹시, 이런 적 있지 않나요?

사주 여덟 글자가 말해 주는 서연 님의 습관입니다.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.

- [ ] **단톡방에 할 말을 썼다가 지우고**, 결국 'ㅋㅋ'만 보낸 적이 있다.
- [ ] 남이 일하는 걸 보면서 **속으로 수정안을 이미 다 만들어 둔** 적이 있다.
- [ ] "괜찮아"라고 해 놓고, **석 달 뒤 샤워하다 그 일이 떠올라** 갑자기 서운해진 적이 있다.
- [ ] 친구 고민은 잘 들어 주면서, **내 고민은 다 해결된 뒤에야** "나 사실 그때…" 하고 말한다.
- [ ] "지는 건 괜찮아"라고 하지만, 사실 **다음 판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.**
- [ ] 누가 알려 준 방식보다 **내가 찾은 방식이 더 빠르다는 걸 증명해 본** 적이 있다.
- [ ] 처음 본 사람에게 **"생각보다 말 잘하시네요"**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.
- [ ] 말 한마디가 세게 나가서 **집에 가는 길 내내 곱씹은** 적이 있다.
- [ ] 혼자 카페에서 **계획표를 정리할 때** 이상하게 마음이 제일 편하다.
- [ ] 맡은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지만, **힘들었다고 티 내는 건 싫다.**
- [ ] 장바구니에 담아 두고 **후기만 3일째 읽고 있는** 물건이 있다.
- [ ] 여행 가면 **내가 짠 일정표대로** 움직여야 마음이 놓인다.

> 여덟 개 이상이라면 서연 님의 사주는 아주 '선명하게' 드러나는 편입니다. 다음 장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.

◆ 09 · HABITS

자꾸 반복되는 실수 4가지

고장이 아닙니다.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버릇이고, 고치는 법이 있습니다.

01 · 서운함을 쌓아 둔다

증상 그때는 괜찮았는데, 몇 달 뒤 같은 상황에서 예전 일까지 한꺼번에 떠오른다.

원인 흙은 무엇이든 덮어서 보관합니다.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.

해결 서운함의 유통기한을 일주일로 정하세요. 일주일 안에 말하거나, 일주일 뒤 버리거나.

02 · 맞는 말을 너무 세게 한다

증상 내용은 100% 맞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.

원인 상관은 '더 나은 방법'을 보는 별이지만, 말에 브레이크가 약합니다. 양인살이 날을 세웁니다.

해결 지적하기 전에 대안 먼저. "이게 틀렸어" 대신 "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."

03 ·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

증상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고, 다 끝난 뒤에야 말한다.

원인 제왕(帝旺) 자리의 날 기둥 — 약한 모습은 정리된 뒤에만 보여 주는 기질.

해결 '부탁 한 번'을 일주일 목표로 잡으세요. 맡기는 것도 능력입니다.

04 · 결정을 미룬다

증상 장바구니, 이직, 고백 — 마음은 이미 정했는데 실행을 못 한다.

원인 흙이 넷. 무거운 흙은 한번 움직이면 멀리 가지만, 움직이기까지가 오래 걸립니다.

해결 마감을 스스로 정하세요. "금요일까지 생각하고, 금요일엔 무조건 결정."

◆ 11 · LOVE · 끌림

왜 그 사람에게 끌렸을까

정관이 0인 사주는 '틀이 되어 줄 사람'을 찾고, 상관이 강한 사주는 '말이 통하는 사람'을 찾습니다. 서연 님의 끌림은 대개 이 둘 사이에서 갈립니다.

끌리는 유형	왜 끌리나 (사주 근거)	오래 가면
말을 지키는 사람 약속·시간·규칙이 분명	사주에 없는 **정관**을 대신 채워 줍니다. 곁에 있으면 처음으로 긴장이 풀립니다.	**가장 오래 갑니다**
말이 통하는 사람 농담의 수준이 맞음	**상관 26.1**의 눈이 만나는 상대. 대화가 재미있어 빠르게 가까워집니다.	**재미 뒤에 평가전이 옵니다**
돌봐 줘야 할 사람 재능은 있는데 불안정	일지 속 **庚(경) 상관과 丙(병) 정인**이 함께 움직여 고쳐 주며 챙기고 싶어집니다.	**가장 많이 지칩니다**
나보다 센 사람 지지 않고 받아치는 상대	**겁재 40.9**가 승부욕으로 불이 붙습니다. 처음엔 설렘처럼 느껴집니다.	**누구도 먼저 굽히지 않습니다**

설렘을 구분하는 질문 세 개

- [ ] 이 사람 앞에서 **내가 편해지는가, 날카로워지는가?** 날카로워진다면 상관이 켜진 겁니다.
- [ ] 이 사람을 **고치고 싶은가, 그대로 두고 싶은가?** 고치고 싶다면 돌봄이 아니라 첨삭입니다.
- [ ] 이 사람의 말을 **근거 없이 믿어도 되는가?** 서연 님에게 이 질문의 답이 곧 정관입니다.

> **2027년 이후** — 대운의 甲(갑)이 나를 뜻하는 글자 己(기)와 합을 이룹니다. 없던 정관이 들어오는 10년이라, 예전에는 심심해 보였던 '말을 지키는 사람'이 달라 보이기 쉽습니다. 취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비어 있던 칸이 열린 것입니다.

새 인연 앞에서는 위 세 질문을 **한 달 뒤에 한 번 더** 물으세요. 답이 그대로면 정관의 자리, 바뀌었으면 상관이 켜진 끌림입니다. 빠르게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이 한 달이 필요합니다.

◆ 20 · FOR THE PEOPLE AROUND ME

가족·연인·동료에게 보여 줄 한 장

이 페이지만 캡처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 주세요. ✂



사주한권 · 나를 대하는 법

이서연 님을 대하는 법

조용한 감독관 · 己(기)土

✓ 이렇게 대해 주세요

- 부탁할 땐 **이유**도 같이
- 약속은 **시간까지** 정확하게
- 혼자 있고 싶어 하면 **그냥 두기**
- 디테일을 알아봐 주는 **구체적인 칭찬**
- 조용해지면 "내가 놓친 거 있어?"

⊘ 이건 피해 주세요

- "그냥 하라는 대로 해"
- 여러 사람 앞에서 **지적하기**
- 약속 당일 **갑자기 변경**
- 침묵을 **'괜찮다'로 해석**하기
- 고민을 말할 때 바로 해결책부터

힘이 나는 것 혼자 정리하는 시간 · 따뜻한 차 · 오래된 친구 한 명 | **한번** 내 사람이면 평생